

이론과 실기의 분리가 필요한 영화학과 교육

이 총 직
중앙대 영화학과 교수

1. 머리말

이제 영화는 단순히 예술이나 문화의 차원을 넘어서 21세기에 대비하는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얼마 전에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보고한 것처럼 스피버그의 영화 <쥬라기 공원> 한 편 수입이 우리의 2년 동안의 자동차 수출액과 맞먹는다는 사실은 새삼스럽게 영화예술의 산업적 측면에 대해 세인의 관심을 끌게 만들었고 평생 영화 한 편 보지 않던 행정관료들조차 자연스럽게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우리 영화와 비디오 시장의 80% 이상을 외국의 영화에 잠식당했고 일본의 위성방송을 통해 그들의 영화가 안방까지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그러한 자각을 했다는 사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의 영화예술과 영상산업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경제적 발전에 비례해서 확산되는 문화적 욕구와 함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영상산업의 발전은 더욱 전문화된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화교육이 낙후되어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위해 더욱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영화학과 혹은 연극영화학과의 영화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중앙대학의 영화학과를 비롯해서 6개 대학이다. 그동안 적박한 영화문화의 환경과 사회적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들 대학들이 그야말로 총체적인 영화교육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대학 영화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으나 달리 영화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이 없던 시절에 영화연구의 학문적 토대를 세우고 영화와 방송, 광고 등의 분야에 많은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나름대로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점차 사회가 다변화되어 가고 영상문화의 영역 역시 보다 전문화되어 가는 오늘날에 와서는

영화학과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점차 빛을 바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것은 이렇게 전문화되어 가는 영상환경의 변화에 대학의 영화교육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다.

몇 가지 점에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제기될 수 있는 점은 대학의 영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그동안의 변화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교과목의 편성에서부터 전공의 분리, 현장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여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교육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퇴보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대학의 열악한 교육체정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공별 전임교원의 확보가 어렵고 실습기자재 역시 10여 년 전의 낡은 것들을 수리해서 쓰는 상황에서 무슨 변화가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보면 그동안 과연 어떠한 개선의 노력이 있었는가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무작정 현실만을 탓하며 안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안에서라도 가능한 대안들을 마련하여 영상문화의 변화에 대처해야 함은 대학의 영화교육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사명인 것이다.

대학이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영화학 연구의 체계를 세우고 영상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영화교육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해서 보다 획기적인 영화교육의 발전적 대안은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현재의 교과과정이 21세기를 대비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의 교육체계가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합한 것인지, 만약 어울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영화학과 교육의 현황

국내 대학에서 영화전공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중앙대의 영화학과를 비롯해서 경성대, 단국대, 동국대, 청주대, 한양대 등의 연극영화학과 영화전공이 있다. 89년에 영화학과로 분리된 중앙대를 제외하고는 5개 대학 모두 아직까지 연극영화학과와 영화전공으로 남아있는데 점차 연극과 분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연극과 영화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야가 생각보다 그다지 많지 않다는 지적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전공의 전문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중앙대 영화학과와 경우 40여 개의 영화 이론, 실기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반해 다른 대학은 20개가 채 안 되는 영화 전공과목이 개설되어 상대적으로 전공과목의 부족을 실감하고 있다. 영화학과로 분리되어 있는 중앙대의 경우에도 이론과 실기(연출, 촬영, 녹음, 시나리오 등)의 전공별 분리를 위해서 더 많은 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연극영화학과로 있는 다른 대학의 경우 전공분리는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대학들은 과목의 개설 수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영화학과(연극영화학과와 영화전공)의 교육목표나 교과과정은 6개 대학 모두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영화학과로 분리되어 있는 중앙대의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한다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영화학과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더욱 적합할 것이다.

영화학과의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영화학을 중심으로 한 영상관련 학문의 연구를 통해 영화문화의 발달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세우고 영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학문적 근거를 제시하는 이론교육과, 영화예술의 밑거름이 될 현장인력을 양성하는 실기교육이 그것이다. 국내 대학의 영화학과는 기본적으로 이론과 실기 모두를 교육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열악한

교육 여건상 이제는 이러한 목표의 실현이 다소 무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와 같이 영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전무한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오늘날처럼 모든 분야가 전문화된 시점에서는 더이상 이러한 개괄적 교육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위상의 정립과 교과과정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한다는 자성이 일고 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유럽은 이론 중심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기 교육은 별도로 설립되어 있는 공·사립의 영화학교에서 전담하고 있고, 반면에 미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이론과 실기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서로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각 나라의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선불리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다고 하겠다. 다만 우리의 경우 미국식의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여건에서 미국의 풍부한 지원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각 대학 영화학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대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론과 실기 과목이 50%씩 분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개설된 과목으로는 영화사, 한국영화사, 영화미학, 현대영화이론, 영화비평, 작품분석, 한국영화연구, 기록영화, 실험영화, 영화사회학 등의 이론과목과 영화제작실습(W.S), 영화기술, 촬영, 편집, 녹음, TV제작실습 등의 실기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론과목은 일반 인문 계열의 강의와 별반 다르지 않게 진행되고 다만 영화를 텍스트로 삼아서 강의를 행해지기 때문에 비디오를 이용한 텍스트 분석이 일반화되어 있다. 실기의 경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작품의 제작인데 각자의 전공에 따라 연출, 시나리오, 촬영, 편집 등의 분야를 맡아 공동작업을 한다. 하지만 편당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제작비의 문제 때문에 최소한의 제작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보다 활발한 작품의 제작을 강요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그 외의 실습과목들은 원칙적으로 실습위주의 강의

로 계획되어 있으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 및 기자재의 여건상(예를 들어, 대학에서 강좌의 개설에 필요한 최소 수강인원을 15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 인원은 실습이 가능한 한계인원이며 그 이상의 인원이 신청을 하면 실습이 불가능해진다.) 시범만 보이는 데 그치고 나머지는 강의식으로 진행하기 일쑤다. 그나마 간신히 실습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기자재의 부족으로 몇 명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멍하니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렇듯 높아져 가는 사회적 요구와 학생들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영화학과는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 지원의 미비로 인해 필요로 하는 기자재를 갖추지 못해서 제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이제 이러한 영화학과의 문제점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전공 부재의 현실 - 이론과 실기 병행의 허상

현재 우리의 대학에서 지향하고 있는 영화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영화를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영화사, 영화미학, 영화비평 등을 가르치는 이론교육과, 영화예술인이나 영화기술인을 양성할 목적의 실기교육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가르친다는 영화학과의 교육목표에는 한 가지 의문점이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이러한 이론과 실기가 전공별로 분리되어 실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인교육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얼핏 보기에는 유사한 것 같지만 전자의 경우 각 전공별로 교과목이 설치되고 그에 맞는 교과과정이 짜여져서 같은 학과이면서도 서로 다른 교육을 받게 되므로 학과의 규모나 교과과정이 훨씬 다양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특별한 전

공이 설정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교과목의 개설로 가능해진다. 또한 교과과정의 수준도 전자의 경우 자기 전공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있는 교육이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 전반적인 이해의 차원에서 다소 깊이는 없더라도 폭 넓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목표를 지향하는가는 대학의 교과과정의 편성이나 강의의 수준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국내 대학 영화학과의 경우 대개 지향하는 목표는 전자와 같이 전공별 교육이면서도 실제로 후자와 같이 개괄적인 교육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각 대학마다 전공분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전공이 무엇이든간에 영화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은 모두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지 빼고는 전공에 대한 아무런 제한도, 의미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다. 이론을 전공하겠다는 학생도 필요없는 실기과목을 모두 들어야 졸업이 되고 심지어 졸업논문 대신 졸업작품을 제출해야 하는 모순까지 생기게 된다. 반면에 촬영이나 연출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영화미학이나 영화사 회학과 같은 이론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 정작 자신이 필요로 하는 창의력의 개발에 전력을 할 시간을 과제물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교육은 구호에 그치고 있고 이론과 실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배우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겠다. 아직도 영화를 제대로 배우려면 이론도 알고 작품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것은 이상에 불과하고 오늘날과 같은 전문화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일 뿐이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바로 대학의 영화학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우리 대학들이 안고 있는 어려운 재정상태로 인해 학과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각 전공을 맡아줄 전임교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화교육이 결코 국제경쟁

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실기교육의 문제

어느 면에서는 대학에서 실기교육을 포기하고 영화의 학문적 연구에 매진하는 것이 대학의 영화교육을 위해서는 가장 합리적일 것이며 장차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대학의 재정상황으로는 막대한 실습기자재와 비용이 필요한 실기교육을 도저히 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이 엄청난 등록금과 사회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몰라도 우리의 현실에서 대학이 영화의 실기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다른 예술과 달리 엄청난 제작비가 드는 영화의 경우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한 대학에서의 실기교육은 그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대학 영화학과에서의 실기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다시 한번 있어야 하겠다.

각 대학의 영화학과에서는 원칙적으로 실기 전공의 분리를 염두에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교과목 내에서 이렇게 전공을 구분한 실기교육이 행해지기는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실기교육에서 최소한의 전공분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각 시간당 3과목 정도의 선택과목이 제시되어 그 중에서 자기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대학의 현실을 보면 영화학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약 40개 정도의 전공 과목만이 개설되어 있고 그나마도 이론과목과 나누고 나면 15개가 채 안 되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 종합적 성격을 지니는 작품제작 5개를 제외하고 나면 결국 10개 정도의 과목만이 남게 된다. 이 10여 개의 과목을 전공별로 나누면 결국 각 전공당 두 과목이 간신히 주어지게 된다. 4년 동안 두 과목을 수강하며 그것을 전공했다고 하기에는 어딘지 모자랄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이것은 영화학과의 사정이고 연극영화학과

로 남아 있는 학과의 경우 영화전공과목이 20여 개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영화를 전공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하물며 실기의 전공이란 공영 불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나마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더욱 한심해진다. 과목 수가 한정되다 보니 전공에 관계없이 개설되어 있는 영화과목은 무조건 다 수강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실습과목에 30~40명의 인원이 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 폐기 처분 해야 될 정도의 카메라 몇 대 가지고 제작과 실습에 번갈아 가며 이용하다 보니 학생들이 실제로 실습에 임하는 시간은 불과 몇 분에 지나지 않게 된다.

결국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정부차원에서 영상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획기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학 당국에서도 타학과와 일률적으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한정된 교과목의 배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각 학과의 특성에 맞게 교과목을 늘려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화학과로서는 이렇게 방대한 전공을 모두 고수할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조정을 해서 몇 가지 전공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이제 영상원이 개원되어 영화기술교육의 상당 부분은 그 곳에서 맡을 수 있을 것이므로 대학의 경우 새롭게 위상을 정리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맺음말 — 영화학과 교육의 개선방안

대학에서의 영화교육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론과 실기의 포괄적 교육이 주가 되고 있다. 그러나 졸업생의 현황을 보면 그러한 교육의 목표가 무색할 정도로 변변한 학자 하나 제대로 배출해 내지 못했고 영화현장에서의 활동조차 미미한 것이 현실

이다. 이것은 대학에서의 영화교육이 대학의 여건상 이론이나 실습 모두에 있어서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파생된 결과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쉽사리 개선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것은 영화전공학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정책,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 관계되는 부분이므로 한 대학의 노력이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실을 인정하는 선에서 최선의 방책은 미래지향적인 영화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그에 따른 대학 자체의 개선의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각 대학은 저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자체적인 차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여건상 실기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이론교육의 준비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있는 대학은 과감하게 실기를 포기하고 이론 중심의 대학으로 개편을 하여 빈약한 우리의 학문적 토대를 일구어 나가야 하며 실기의 배제에 따른 학생들의 취업에 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실기중심의 대학의 경우 현재와 같은 어정쩡한 전공편성을 과감하게 고쳐서 대학에서 교육 가능한 전공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영상원이 설립되는 마당에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도 않으면서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꿈일 뿐이며 현재와 같이 '모두 다 배운 비전문인'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실기의 경우 대학에서 기자재 및 제작비의 여건상 교육하기 어려운 촬영, 현상, 녹음, 첨단영상 등은 새로 설립되는 영상원에 맡기고 대신 교육이 가능한 연출, 시나리오 등의 전공을 집중적으로 살려야 할 것이다. 아무리 영상원이 개설된다고 해도 CA TV 등 날로 확대되는 영상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학을 이용한 영화기술인력의 수급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대학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여 올바른 영상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교육이

대학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기교육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정리하면 대학의 올바른 영화교육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각 대학은 교수진, 실습기자재 상황, 예산확보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이론과 실기 중 하나를 택해 보다 전문화되고 깊이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대학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② 실기의 경우 전공을 연출, 시나리오 등 교육 가능한 전공만을 대상으로 축소하고 그에 대한 전공교육을 심화시킨다.

③ 각 대학간의 전공 교류학점제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이중투자를 막고 효율성을 확보한다.

④ 산 교육을 위해 현장과의 연계를 통한 현장 실습제도와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

⑤ 영화학과 학생들의 실습작품 제작에 대한 국

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상과 같은 대안의 제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화교육의 주체가 되는 대학 전임교수들의 자각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물론 전임교수들 역시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있다면 과거의 관행과 까다로운 대학의 행정절차가 가지는 어려움만을 강조하며 안주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를 수용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이충직/중앙대 연극영화학과와 동 대학원, 프랑스영화학교 E.S.R.A를 졸업했다. 한국영화학회 학술간사를 역임했고, 현재 중앙대 영화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타비아니 형제의 사운드 사용에 대해서", "줌과 트랙의 결합에 의한 미학적 사용", "한국 영화에서의 사운드" 등이 있다.